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광명소 자리매김

관람객 100만명 돌파, 전국 5대 우수박물관 선정



지난 2011년 9월 30일에 개관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매 분기마다 다양한 테마를 기획전시해 인기가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는 박물관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인근에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시대를 잘 말해주는 근대역사 문화벨트도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 근대역사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멋진 등대가 보인다. 이 어청도등대는 여러 관광객들의 포토존이 되기도 한다.

근대역사박물관 1층에는 해양물류역사관, 어린이 체험관이 있다. 군산은 옛날부터 바다와 옆에 있어서 해양 물류의 도시로 통했다.

해양물류역사관은 '국제무역항 군산', '삶과 문화', '해상유통의 중심', '해상유통의 전성기', '근현대의 무역', '바다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배가 있어서 군산이 옛날에도 해양물류의 중심지였음을 보여 느낄 수 있다. 또한 종합영상실에서는 인형극을 한다.

박물관에는 어린이들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도 어린이체험관을 만들었다. 2

층으로 올라가면 기증자 전시실을 볼 수가 있다. 이곳에는 여러 기증자들의 물품이 전시돼 있어 더욱 실감나게 해준다. 또 3층에는 근대생활관과 기획전시실이 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근대생활관에는 근대의 모습을 진짜 실제같이 재현해 놓았다. 어른들은 그곳에 가면 추억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그 곳에서는 근대생활관을 무대로 연극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 분기마다 다른 기획 테마를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 기획전시가 근대역사박물관이 흥행을 이끌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최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또한 대한민국 5대 우수박물관으로 뽑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했다.

박물관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00원, 어린이 500원이고 군산시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50% 할인된 금액인 각각 1000원, 500원, 3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 김예은기자 · 군산중앙중3



총알자국 흔적의 아픔 간직한 해망굴

높이 4.5m 길이 131m 반원형 터널

군산시 해망동에 위치해 있는 해망굴은 옛날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화재 제184호이다.

반원형으로 된 해망굴은 터널 높이 4.5m, 길이 131m이며 일제강점기 시대에 군산 내항과 시내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호남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보다 편하게 항구로 나르기 위함이 진짜 목적이다.

옛날에는 해망굴을 통해 시내에서 소릉동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

해망굴은 입구 근처를 잘 살펴보면 총탄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군산에 주둔한 북한 인민군 지휘소가 이곳에 있어 매일 연합군과 공군기들의 기관총 폭격을 받아 입구에 총알자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안에 들어가 보면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데 그 느낌이 꼭 전쟁 당시에 공포 속에서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든다. 뒤 쪽으로 나가다보면 옛날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아쉽다. 작년에도 가고 이번에도 갔지만 항상 갈 때마다 총탄의 흔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박서린기자 · 군산영광여고2



23년 전통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성황

군산출신 故 채금석 선생 정신 기리는 대회



군산출신 故 채금석 선생의 축구정신을 기리는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군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산 일대에서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故 채금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 대회'가 개최된다.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북축구협회 주관, 군산시와 군산축구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석배 학생 축구 대회는 1992년 창설됐다. 이후 전라북도 여러 시 군을 돌며 개최하다가 2013년부터 군산시에서 영구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대회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축구인의 이름을 내걸고 치러지는 대회로서, 명성이 높은 대회다.

얼마 전 은퇴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박지성 또한 1992년 첫 대회에서 세류초 주장으로 출전해 준우승을 이끌었으며, 현 K리그 소속 축구선수들은 대다수가 이 대회를 거쳐 갔을 정도로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대회다.

▶ 故 채금석 선생은 누구인가

채금석 선생은 1904년 군산시 구암동에서 태어나 군산영명학교(현 군산제일중고교)에 입학해 축구를 시작했다.

채금석은 군산출신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선수 시절 빠른 발로 유명해 '오토바이' 라고 불렸다. 일제강점기 당시 1934년에는 조선대표 선수로 경평축구대회와 1936년 하계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했다.

은퇴 이후에는 프로축구, 실업, 대학, 초 중 고 등에 걸쳐 지도자로서 축구 발전에 공헌했으며 고향 군산에 내려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 2015 금석배 학생 축구 대회 성료

지난 1월 21일 개막해 2월 1일 막을 내린 '2015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 대회'에는 초등부 34개팀, 고등부 31개팀, 고등부 저학년 10개팀 총 75개의 팀이 참가했다.

특히 국내 프로팀들이 후원하는 U-18팀을 비롯해 국내 정상급의 기량을 가진 팀이 대거 이름을 올려 향산된 대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는 군산월명종합경기장의 6개 구장에서 이뤄졌으며 초등부의 경기는 수송체육공원, 군봉배수지, 대야초교 총 3곳에서 치러졌다.

고등부 경기는 군산월명주경기장, 대야체육센터, 군산대, 호원대 총 4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대회의 우승팀은 초등부는 경북포철 동초, 고등부 경북용문고, 고등부 저학년은 경북글로벌선진고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한 도내 소재의 군산제일고와 이리고는 차례로 고등부 저학년 준우승과 고등부 3위를 기록했다.

/ 유승연기자 · 전북외고2



▲ 채금석 선생 기념 동상

역사적 가치 지니고 있는 구 군산세관 우리나라 현존 서양고전주의 건축물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해 있는 구 군산세관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에 지정돼 있다. 이 건물은 1906년에 계획됐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1908년 준공됐다.

이 건물은 독일인이 설계를 맡아 228㎡(69여평)정도이며 유럽의 건축양식으로 설계돼 있다. 또한 건물의 외벽은 벨기에로부터 수입한 붉은 벽돌이고 건물의 내부는 목조로 건축돼 있으며 서양고전주의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구 군산세관 건물의 별관은 다 허물고 본관은 현재 호남관세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건물 내부에는 세관기, 세관복 뿐만 아니라 군산세관의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해 놓았다. 이 사진들 중 창고에 쌀가마니 등을 쌓아 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수탈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는 군산세관에서 적발한 가짜명품들을 전시해 놓을 뿐만 아니라 가짜상품들과 진짜상품의 구분법까지 전시해 놓았으며 원산지 부정표시 사례들과 구분법까지 설명해 놨다.

구 군산세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서양고전주의 건축물을 감상해 보고 일제강점기시대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

/ 윤민혁기자 · 군산고2



채만식의 작품세계 가득 '채만식문학관'

전시실, 영상실 등 다양한 관람 · 체험

금강하구둑을 따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채만식 문학관을 볼 수 있다. 채만식 문학관은 군산 소설가 채만식 선생의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인데, 마치 배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서면 채만식의 작품 탁류에 나오는 '정주사의 집'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볼 수 있다.

또한 1층에는 채만식의 삶과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채만식이 작품을 쓰는 모습을 형상한 마네킨도 있다. 또 채만식의 작품을 잉크를 이용해 펜글씨로 원고지에 써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글을 써보니 정말 작품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한번도 써보지 않은 펜글씨를 쓰는 새로운 경험도 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채만식이 언제 무슨 작품을 썼는지 간단하게 쓰여져 있으며 실제 채만식의 작품과 사진을 전시해놓았고 채만식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영상

실이 마련돼 있다.

채만식 문학관은 채만식의 작품과 삶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작품세계까지 알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작가 채만식의 작품 세계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 정동화기자 · 군산중3



채만식 선생은...

백령 채만식 선생(1902.6.17~1950.6.11)은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으며 임피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2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와세다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했다.

또한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개벽사 등의 기자로 활동했으며 1945년 임피로 낙향한 후 다음해 이리시(현 익산시)로 옮겨 1950년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대표작으로는 탁류를 비롯해 치숙, 태평천하 등이 있으며 그의 작품세계는 사회를 풍자하거나 반어적인 작품이 많았다.



역사의 향기가 묻어있는 짬보선창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쌀 수탈 이용

군산시는 일제 강점기때 항구도시의 역할을 해왔다. 그 이유는 옥구평야와 김제평야 등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군산시 금암동에 위치해 있는 짬보선창은 일제 강점기에 쌀을 나르는데 이용했던 활발한 항구 중 하나였지만 물고기가 잡이지 않고 퇴적물이 쌓여 결국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짬보선창의 또 다른 이름은 죽성포인데 일반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생소하다. 죽성리 포구는 조선시대 이곳에 큰 대나무 숲이 있어 마을을 감싼 대나무 숲이 마치 성(城)과 같이 서쪽과 북쪽에서 오는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는 모습이었기에 그 마을의 이름을 죽성리(현 죽성동)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한다. 하지만 이후에 이곳은 짬보선창이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불려 졌는데, 짬보선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옛날 이곳 선창에 짬보(언청이)라고 불리는 객주가 있었는데 그가 이곳 포구의 상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에 짬보선창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포구의 모습이 안쪽으로 짬진 모습이 마치 짬보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불렀다고도 하는데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짬보선창에 가면 일단 입구에 짬보선창의 역사를 써놓은 큰 석비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가다보면 짬보선창이 보인다.

이곳에는 생선을 담기 위한 상자들이 많이 쌓여있고 움직이지 않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바지선과 예인선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있고 민아양의 등대도 보이며 서천으로 나아가려는 다리도 보인다.

짬보선창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다방들이 보인다. 이 다방들은 70년대 또는 60년대, 더 나아가 50년대의 삶이 머물던 곳처럼 느껴진다. 또한 음식점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 이곳 식당들의 손님들은 대다수가 40대 이후로 보여 젊은이들의 발길이 없는 것이 아쉬워 보였다.

/ 황인수기자 · 군산제일고3



군산 영화사 '어제와 오늘'

국도 · 코아 · 아카데미 · 허리우드 · 명화극장 등 과거속으로
현재 롯데시네마, CGV 운영, 각종 편의시설 구비

영화문화가 수년전부터 시민들의 여가생활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군산지역 극장들도 덩달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옛날에 군산지역에는 국도극장, 군산극장, 코아극장, 아카데미 극장, 허리우드 극장, 명화극장 등 여러 개의 극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극장들은 좌석제가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없었다. 특히 한 편의 영화가 끝나면 나가지 않고 2~3편 영화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국도극장의 경우에는 주말 관람객이 5천여 명에 달하는 극장이었으나 메가라인7(현CGV)와 롯데시네마와 같은 복합영화관이 들어설 시기에 주말 관람객 수가 700여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국도극장은 문을 닫게 됐으며 그 후 우일시네마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관람객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군산에는 메가라인7과 롯데시네마가 있었으나 메가라인7은 부도로 인해 2008년 2월 영업을 중단되고 2008년 11월 21일 CGV로 이

름이 바뀌면서 현재는 CGV와 롯데시네마 등 2개의 영화관만이 운영되고 있다.

CGV는 7개의 관에 1,100석의 좌석이 있다. CGV에 들어서면 SWEET BAR가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맛의 팝콘과 과자가 있어 영화를 보며 같이 즐길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 2006년 4월 27일에 개관했으며 5개의 관에 총 975석의 좌석이 있다. 또한 군산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초대형 스크린으로 실감나는 화면과 3.4WAY 디지털 음향시스템으로 생동감 넘치는 영화 관람이 되도록 시스템을 완비했다.

이 두 영화관은 친구들끼리도 많이 오는 장소이고 주말이면 사람이 북적거린다. 특히 명절이 되면 예약을 하지 않고는 당일엔 영화를 볼 수 없을 만큼 인기가 좋다.

한편 군산 지역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데 이들 영화들에 대한 전시관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김예진기자 · 군산중앙중1

